

'행동하는 임실군정' 실현

심 민 군수, 임실N치즈축제 및 임실N치즈 위상강화 발전방안 모색

심 민 임실군수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군정 핵심사업 현장점검에 적극 나서면서 '행동하는 임실군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민선 7기 2년차를 맞이한 첫날인 1 일 심 군수는 군정 핵심사업 현황을 찾아 임실N치즈축제 및 임실N치즈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군수는 이날 청원 월레조회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임실N치즈축제의 준비상황과 관련 기반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심 군수는 주요 행사가 열리는 임실 치즈테마파크 내 사업현장을 찾아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19 임실N치즈축제는 올해로 5번째

를 맞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주목받는 축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도 그간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해 큰 호응을 얻었던 천만송이 국화재배와 향토음식관 운영, 국가대표 알치즈피자 만들기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임실을 찾는 방문객들의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작년보다 더욱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사계절 장미원 조성, 임실치즈 팸랜드 관광기반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대형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서바이벌 게임장과 올 봄에 파중추 구절초 경관 관리 등을 통해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군은 지난 해 축제때 35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해낸 SNS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직원들과 주민들이 개인 SNS를 통한 축제홍보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성공적인 축제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제 및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에 몰두할 예정이다.

심 군수는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 마련과 행사 준비에 많은 직원들과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쟁겨 방문객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축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황숙주 군수 '향기나는 순창 만들고파'

지난 1일 취임 1주년 맞은 월레조회서 공무원 역할 강조

"저에게 앞으로 주어진 임기는 3년이지만 순창의 미래 100년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제 모든 열정을 순창에 쏟을 계획입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군 공무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대규모 행사로 확대하기보다는 매일 치러지는 여느 월레조회처럼 공무원만 참석해 의견을 간소화했다.

이날 황 군수는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돌아보며 군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향후 순창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3선에 성공하며 민선 7기 출범을 알렸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지난 9년 동안 순창군을 위해 힘 없이 달려온 결과 올해 초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였다.

발제터널 개설사업이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순창군민의 오랜 숙원을 풀었으며, 당초 발제터널 개설사업이 인계~쌍치간 국도 21호선 2차로 시설개량사업으로 확대되며 사업비도 당초 488억원에서 1153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관광객 500만명 유치'라는 비전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체계산 출렁다리가 위용을 드러내며, 국도 21호선을 오가는 방문객들 사이에 화

제로 떠오르고 있다.

황 군수는 이을곡 선생님이 남긴 철언고시 중에 '사향노루가 불산을 지나가니 풀숲에서 향기가 절로 나네'라는 뜻인 사과춘산초자향(驛過春山 草自香)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여러분들과 향기나는 순창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농촌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

남원시가 열악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급지 방촌마을 농촌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6월말에 완료됐다.

이번에 준공된 사업은 2018년도에

전라북도가 주관한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총 2억9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3월에 착공했다.

사업에서는 마을 진입로와 안길 포장, 담장과 마을우물 정비를 통해 노

후화된 마을기반시설 개선 및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인프라를 강화했다.

서광인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도시민의 귀농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2018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순창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완료

공모사업 선정 7200만원 투입... 지난달 구립초도 응모

순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실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가상현실 스포츠시스템의 보급·설치를 통해 체육활동이 취약한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강한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기회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여기에 체육 이론 및 실기에 기반한 체계적인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체육 활동의 목표인 도전과 경쟁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도 마련하며 스포츠 콘텐츠 활성화에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7년 동계초등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설치된데 이어

2018년에는 순창초등학교가 설치를 희망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기금 3600만원과 준비 36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3월 본격 착수에 들어가 6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최근에는 작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환경이나 보니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돼 초기보다 많은 학교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순창군도 올해 구립초등학교가 설치를 희망해 지난 6월초 공모사업에 응모한 상태다.

군은 이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교통사고예방 큰 효과

남원시는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운행이 잦은 농기계를 대상으로 추진한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사업이 교통사고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도로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기계 야간 운행 시 농기계 식별이 곤란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등화장치는 태양광 자체충전 방식으로

야간 운행시에는 200m 전방에서도 식별이 가능해 차량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금년에 남원시에서는 경운기, 트랙터 보유 농가 중 안전등화장치가 미부착 되었거나 노후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4천만원을 투입해 400대에 안전등화장치를 부착해 전북도내 최대 예산을 투입 완료했다.

이준무 농정과장은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 사업은 전 농업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폭염피해 예방 캠페인

남원시와 지역자율방재단은 해마다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하고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남원 장남(4일, 9일)마다 7월부터 8월까지 얼음생수전달 캠페인을 공식시장 일원에서 전개할 방침이다.

캠페인에서는 시장 상인과 장보러 오는 시민들에게 매회 1000명의 얼음생수를 폭염 국민행동요령 리플렛과 함께 전달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가 큰 활동이다.

특히, 폭염 특보 발효시에는 매일 15개소 시내 버스승강장과 횡단 등 다중이용시설에 15kg 얼음을 비치하고, 폭염 취약지역의 사전 예방활동과 무더위쉼터 수시점검을 통해 재난 취약자의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방재단 관계자는 "여름철은 장마와 폭염 등 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대비와 대응방재활동을 통해 안전한 남원 건설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심부름센터 개소

남원시는 1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맞춤형 복지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요천로 1531)를 열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원주 시장과 남원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들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도움, 병원동행,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638-0133)로 접수하면 전담인력이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거나 함께 한다.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노재규)는 "단순 심부름 해결로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사례관리와 자원연계까지도 함께 진행해 정형적이고 획일화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욕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